

진짜 구세주는 한국에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한다

창세기 49장 야곱의 자식들에 대한 장래 예언을 세밀히 읽어보라

이 세상에 종교도 학문도 없었다

이 세상에 학문도 없었고 종교도 없었다고 이 사람이 20년간 외치고 있죠? 이 세상에 학문이 있는데 학문이 없다고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학문인 것을 학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학문이라는 것은 사물에 대한 실체를 바로 알고 있는 것이 학문이지, 사물에 대한 실체를 왜곡해서 말하거나 왜곡해서 알고 있는 것은 학문이라고 할 수가 없죠? 또한 종교라는 것은 진리 구현이 종교인데 진리 구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종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진리라는 것은 변하는 것이냐, 안 변하는 것이냐? 안 변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죠?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은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도 아닌 종교를 진짜 종교인 줄 오인하고 있는 거죠?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죠?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거기에 대응하는 논리가 있어야 누구든지 인정을 하겠죠? 오늘날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유교, 모든 종교가 죄가 될 줄 알고 있어요? 죄가 될 줄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위치를 알고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하늘꼭대기에는 마귀가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 안 써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공중권세 잡은 신이 악신이다.” 하늘에 있는 신이 악신이라면 악신이 하나님의 신이예요, 마귀 신이예요? 마귀 신이죠?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신이 불손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다.” 불손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라면 마귀 영을 말하는 거니까 공중하늘에는 마귀가 있다고 증거죠? 또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

수가 뭐라고 말했느냐하면,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하늘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죠? 사탄이 마귀죠? 마귀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늘나라, 에덴동산에 들어 갈 수 없어

태초에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 있죠? 하나님이 나 하나님 형상을 입었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뜻이예요. 아담과 해와 또한 에덴동산에서 살았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에덴동산이 이 세상 나라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에서 아담과 해와가 살았다는 것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지, 인간의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인간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써 있어 있죠?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이렇게 성경에 또렷하게 써 있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의 뜻은 전에 사람이 하나님이였었다는 의미가 들어 있는 말이죠? 전에 하나님이였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어야 천당도 가고 구원도 얻는다. 이 소리죠?

이렇게 성경은 써 있는데 4천년 인류역사가 흐르면서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나는 곧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써 있어, 안 써 있어? 시편 82편 6절에 “너희는 신들이니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지존자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죠? 사람을 가

리켜서 전부 신이라고 그랬고 전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또렷하게 써 있어 있죠. 뿐만 아니라 신명기서 14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어 있느냐하면, “너희는 여호와와 자녀니라.” 여호와가 마귀예요, 하나님이예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죠?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성경에는 써 있어 있죠. 그런데 기독교는 오늘날 사람을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또 요한일서 3장 2절에 가서 보면, “지금 너희가 여호와와 자녀니라.” 이렇게 써 있어 있죠?



구세주 조희성님

리켜서 전부 신이라고 그랬고 전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또렷하게 써 있어 있죠. 뿐만 아니라 신명기서 14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어 있느냐하면, “너희는 여호와와 자녀니라.” 여호와가 마귀예요, 하나님이예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죠?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성경에는 써 있어 있죠. 그런데 기독교는 오늘날 사람을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죠? 또 요한일서 3장 2절에 가서 보면, “지금 너희가 여호와와 자녀니라.” 이렇게 써 있어 있죠?

예수는 공중 신 즉 마귀의 아들

이렇게 성경 여러 군데에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써 있어 있는 걸 보아, 분명히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였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에덴동산이 하늘나라인 고로 하늘나라인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해와가 살았다는 말씀은 하나님이였었다는 의미가 되는데 찬송가에도, “주 하나님이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가는 곳이지, 사람은 못 간다는 말이예요. 아시겠어요? 이 사실을 기독교에

서 알아?

예수라는 자가 와서 자기만 믿으면 하늘나라 천당 간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러니까 사람이 천당 간다는 얘기죠? 사람은 천당 못 간다고 성경에 써 있어 있는데 예수라는 자가 자기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말을 했으니 이거야말로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자의 얘기죠? 믿으려면 성경적으로 믿어야 참 종교지, 성경적으로 믿지 않는 것은 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종교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예수라는 자는 마귀 신이 함께 하는 자요, 마귀새끼라는 것이 성경에 써 있어 있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공중권세 잡은 신이 악신이다.” 조금 아까도 봉독을 했죠?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공중권세 잡은 신이 불손종하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써 있어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7절 이하를 읽어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를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줬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올새 공중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하는 소리를 세례요한이 들었던 거죠? 그 당시 세례요한의 신관이 하나님이 하늘

꼭대기에 계신 줄 알고 있었던 고로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광야에 나가서 외치기 시작한 것이 기독교의 시발점이 된 거죠? 시발점이 잘못 된 거죠? 하늘의 공중 신이 마귀 신이라고 성경에 또렷하게 써 있어 있는 고로 마귀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오인해가지고 세례요한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 하는 바람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줄 알고 예수를 믿어왔던 거예요.

그러나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예수가 한 말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써 있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명이라도 영생 얻은 사람이 있었어? 2천년 동안 한 명도 영생을 얻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예수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참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구세주예요, 가짜 구세주예요? 가짜 구세주라는 말이죠?

예수는 참 구세주가 아니다

성경은 구세주가 어디에서 나타난다는 그 위치가 기록되어 있어, 기록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민족 가운데서 구세주가 나올 것 또한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지도 않고 또한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고로 참 구세주가 한국 땅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써 있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장님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 창세기서 49장 16절에 야곱이 열두 아들 중, 단을 향해서 장래 일을 예언한 말씀이 써 있는데 “단은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첩경의 독사가 되어 말굽을 물어 말 탄 자를 떨어뜨리라 여호와와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이 한 말이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신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옮겨졌고, 이삭의 하나님의 신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옮겨진 거죠? 또 야곱에게 옮겨진 하나님의

신이 단에게 옮겨진 거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사람은 심판을 못해요. 아시겠어요? 단이 누구냐 하면 단군 할아버지예요. 우리 옛날 선조들이 조상의 이름을 ‘단’이라고 부르기에 너무 단조롭고 상스러우니까 임금 군(君)자를 하나 붙이자 해서 ‘단군’이 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단군 할아버지의 원래 본명은 ‘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그 이름을 지었는데, 히브리어로 ‘단’이라고 하는 의미는 심판자라는 뜻이예요. ‘단’이라는 자체가 심판자라는 뜻이예요. 그러니까 단이 태어날 때부터 단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여할 것을 심중에 두고 그와 같이 이름을 지은 거죠? 열두 아들 중에서 단에게만 심판권을 줬지, 다른 아들에게는 심판권을 안 줬어요.

예수의 조상, 유다에게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야곱이가 말하기를,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흠이 함께 하는데 실로가 나타날 때까지.” 사자새끼라면 짐승 중에서 왕이죠? 짐승 중에 왕이라면 마귀 대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흠이 함께한 다”는 말은 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그걸 번역하면 왕권이에요. 왕권이 같이 한다 이 말이예요. 이 세상은 마귀 세상인 고로 마귀 대장이 왕 노릇하게 되어 있지, 하나님의 대장이 왕 노릇하게 되어 있지. 오늘날 유다 자손인 예수가 온 세상의 왕 노릇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왕 노릇을 하고 있죠? 이 세상 종교 중에서 가장 큰 종교죠? 흠이 함께하는데 실로가 나타날 때까지라는 말은 뭐냐 하면, 구세주가 나타날 때까지 왕 노릇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구세주가 나타나서 이 세상 왕권을 쥐고 있는 마귀 대장을 죽여 버리고 구세주가 이 세상의 왕 노릇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구세주는 예수가 아니라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

2001년 5월 27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현옥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5장 모세》 (4) 애굽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 모세

(4) 애굽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 모세

모세 왕자는 애굽의 왕이 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자신이 왕이 된다면 반드시 투드모세 3세를 제거해야 되고 심지어 그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려야 될 것인데, 모세는 이런 일을 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왕자의 신분을 벗어던지고 이스라엘의 품으로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하여 모세 왕자는 누나 미리암과 카이로의 나일 강변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삼일째 되던 날이 되자, 왕자의 신분을 벗어던지고 이스라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누나 미리암을 만나 친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모세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세 살

러주십시오. 내가 그리로 가서 나의 생명을 보전하겠습니다.” 모세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그의 아버지 아브람이 아들 모세를 위로하며 대답하였습니다. “삼일 전에 너의 누나 미리암으로부터 너의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모습을 보니 자랑스럽구나! 여호와께서 너의 어머니 요게벳을 주장하시어 나의 아들 모세를 이스라엘의 아들답게 울바르게 훈육하고 선하고 정직한 길로 인도하셨음이라. 나의 아들, 모세야, 너의 앞길을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의 형 아론이 애굽의 지경(地境)을 벗어난 미디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아론은 그의 아들들을 앞세우고 동생 모세와 함께 미디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제각기 아라비아 상인으로 변장한 채 낙타를 타고 카이로의 집을 떠나

시내만도 중심부의 나클(Nakhi)과 타맛(Thamad)을 가로질러 홍해 아카바 해변에 있는 누웨바로 향했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함께한 이들 두 형제의 7일간의 여정은 그들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데 충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형 아론이 야곱의 12아들의 장자 단이 남긴 파피루스 두루마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죄다 외우고 있다는 사실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 아론이 파피루스 두루마리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막힘없는 언변으로 들려주는 데에 매우 감사하여졌습니다.

카이로의 집을 떠난 지 7일째 누웨바 1 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의 문자를 빌려 여호와께서 노아가 낳은 셈의 후손에게 행한 일을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기록하였습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은 오늘날 성경 창세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한 일을 최초로 기록한 파피루스 두루마리는 출애굽 때에 요셉의 시체를 이장하기 위해 만든 피라미드 석실에 두고 요셉과 함께 보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12부나 베껴서 이스라엘 12부족의 족장에게 각각 한 부씩에 배부하여 그 부족장들로 하여금 주야로 통독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에 이르자 시퍼런 홍해 바다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론은 손가락으로 홍해 건너편을 가리키면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바다 건너 저곳은 미디안의 땅이다.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열두 아들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며, 또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여섯 아들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아브라함 후처의 아들 중에 미디안이 번성하여 그의 이름에서 파와서 미디안의 땅(사우디아라비아)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여기서 배를 타고 홍해를 건너게 되면 바드(Bad: 울라)라는 곳에 가서 이드로 족장을 찾아라. 바드의 대상들이 애굽의 카이로에 올 적마다 아버지 아브람의 집에서 낙타에 실린 짐을 풀고 숙식한다. 그러니 이드로 족장을 만나거든 아브람의 아들 모세라고 소개하면, 그분이 너를 반기기 맞닿을 것이다.”

아론은 누웨바에서 배를 타고 홍해를 건너는 동생 모세를 전송하고 그의 아들들과 함께 카이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카이로에서 누웨바까지 약 350킬로미터나 되는 먼 길을 보름 만에 다녀온 아론은 애굽의 전역에서 모세왕자를 찾느라



단의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통독함

고 부산히 돌아다니는 병정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아 자취를 감춘 모세의 속사정을 알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고센의 비둠에서 국고성을 건축하는 감독관을 죽였기 때문에 애굽 왕의 노여움을 피하여 도망쳤다고 추측하고 또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다음호에 계속)*